

3/7(월) 여호수아 20-22장 하나님의 분배

<땅 분배>는 자자손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혹이나 분배에 있어 불공정 시비나 분란이 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는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고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의 회막,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18:1,6).

스물론은 거칠고 척박한 땅을 얻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사사들을 도와 전쟁에 앞장섰습니다(삿5:14).
아셀 지파는 지중해와 맞닿은 풍요한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 있어 이방 문화에 물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이나 척박한 땅이 꼭 예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유산되시므로 따로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며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율법을 가르칩니다(21:1-42).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성소/성막 중심부와 관련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민3:31).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유다지파에 배속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후 유다지파 영토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21:9-19).

정착이 시작되면 <지파별 자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함께 진치고 함께 움직이며 정복하던 일도 이제 끝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가나안 남과 북의 물리적 거리는 멀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나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요단강을 사이로 지파 간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2:1-20).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히 단속하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땅을 분배 받았습니까?

- ❶ 내가 받은 땅은 풍요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 ❷ 예상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반전의 기쁨(절망)이 있었습니까?